1. 국내총생산 (GDP):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
2. 국민총생산 (GNP): 한 나라가 일정 기간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
3. 기초재정수지: 정부가 제안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재무 재표
4. 인플레이션: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
5. 디플레이션: 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
6. 디플레이션 스파이럴: 통화량 위축과 물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기업 채무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
7. 스태그네이션: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성장
8. 스태그플레이션: 거시 경제학에서 고 물가상승과 실직, 경기 후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
9. 거품 경제: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
10. 잃어버린 20년: 일본에서 거품 경제 붕괴 이후 1990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한 시간
11.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: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,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
12. 트레이드 오프: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관계. 곧, 실업률을 줄이면 물가가 상승하고,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모순적 관계를 이르는 말
13. 한계효용: 재화나 용역이 증가 혹은 감소 함에 따라 주관적으로 매겨지는 경제적 효용(혹은 가치)의 관계에 대한 개념
14. 한계효용체감의 법칙: 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
15. 양적질적완화 (QQE):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,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
16. 평균가변비용: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변동하는 비용을 가변비용이라 하는데, 이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.
17. 조업중단점: 시장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아지기 시작해서 생산을 그만두게 되는 지점
18. 매몰 비용: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
19. 가격 결정자: 제품의 생산량, 공급량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져,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
20. 완전경쟁시장: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. 즉,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많고, 지배적인 공급자가 없으며, 공급자가 모두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
21. 평균소비성향: 수입에서 세금, 보험료 등을 빼고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
22. 콘드라티예프 파동: 기술 혁신, 전쟁, 신 자원의 개발 등에 의해 나타나는 장기적인 경제 순환
23. 주글라 파동: 기업의 설비 투자로 의해 나타나는 중기적인 경제 순환
24. 키친 파동: 통화 공급이나 금리의 변동, 물가 변동 및 재고 변동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 순환
25. 린 스타트업: 제품이나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모음. 애자일 개발론, 고객 개발, 기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활용. 고객 피드백을 통한 빠른 프로토타입 산출을 추구.
26. 벤처 캐피털: 장래성이나 수익성은 있으나 경영기반, 자금기반이 약한 스타트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자본
27. 액셀러레이터: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,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
28. J커브: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출발 지점에서부터 자금이 소진되며 변곡점을 지나면서부터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이론
29. 데스 벨리: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 고갈 등의 이유로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시기
30. 시드머니: 창업 전, 혹은 창업 직후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개발비 투자. 대부분의 경우 엔젤 투자자(또는 투자사)에게 보통주의 형태로 받는다.